

## 취업모의 분리불안, 직업만족도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Working Mothers' Separation Anxiety, Job Satisfaction, and Overprotective Parenting Behavior on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류정민<sup>1</sup> 신나나<sup>2</sup>

Jung-min Ryoo<sup>1</sup> Nana Shin<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working mothers' overprotective parenting behavior) of working mothers' separation anxiety and job satisfaction on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Methods:** A total of 251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cerning their separation anxiety, job satisfaction, overprotective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s, partial correlations and path analysis.

**Results:** In terms of direct effects, working mothers' separation anxiety had a direct effect on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However, job satisfaction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With respect to indirect effects, working mothers' separation anxiety indirectly influenced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through their overprotective parenting behavior. However, mothers' job satisfaction did not have an indirect effect on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Conclusion/Implications:** Findings from this stud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ducing mothers' separation anxiety in order to prevent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key words** working mothers, preschoolers, separation anxiety, job satisfaction, overprotective parenting behavior

\* 본 논문은 2016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 S1A3A2924375).

\*\* 본 논문은 2015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 보완하였음.

#### 1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 2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e-mail : nanashin@ewha.ac.kr)

## I. 서론

산업화 및 고용 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6년 보고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1%였으며, 특히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 비율이 4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 양육을 보육기관이나 대리양육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영유아 시기 보

육기관이나 대리양육자와의 경험 자체가 자녀에게 항상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보육의 질과 보육기관 내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의 차이에 따라 보육경험이 유아의 또래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인지발달을 촉진하며, 사회성 및 적응력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김지선, 2009; 김희정, 이소은, 2013; 이기숙, 김영옥, 박경자, 2005; Côté et al., 2013; Howes, 2000;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3; Peisner-Feinberg et al., 2001). 하지만 어머니와의 분리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분리불안을 경험하는 유아는 보육기관에서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Cronk, Slutske, Madden, Bucholz, & Heath, 2004; Peleg, Halaby, & Whaby, 2006).

분리불안은 애착대상과 분리 시 보이는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Ambrose, 1961),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생후 6~8개월경 나타나기 시작하여 분리개별화 시기가 끝나는 2.5세경에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된다(Kagan, Kearsley, & Zelazo, 1980). 하지만 유아기에도 분리 시 발달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수준의 불안을 보이는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미경, 김연화, 한세영, 2008; 한국심리학회 연수회, 1985; Dallaire & Weinraub, 2005; Kearney, Sims, Pursell, & Tillotson, 2003; Peleg et al., 2006),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분리불안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 [SAD])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Marks, 1987). 유아기 분리불안 수준이 높을 경우 보육기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Peleg et al., 2006), 위축행동과 슬픔,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거나(김미경 등, 2008), 신체화 증상, 사회화의 어려움, 낮은 학업수행능력 등과 같은 적응상의 문제들을 나타내기도 한다(Cronk et al., 2004). 또한 유아기에 경험하는 분리불안은 이 시기 일반적 불안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Edwards, Rapee, Kennedy, & Spence, 2010; Spence, Rapee, McDonald, & Ingram, 2001)을 보여, 이후 불안장애의 전조가 될 수 있으며(Warren, Huston, Egeland, & Sroufe, 1997), 지속적으로 개인의 정서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haffer & Kipp, 2013). 따라서 유아기 분리불안에서의 개인차를 살펴보고, 이러한 개인차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이후 분리불안장애나 불안장애,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학문적, 실제적인 의의가 있다.

유아가 보이는 분리불안과 관련하여 자녀와의 분리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자체보다는 취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상호작용적 변화가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해도, 2001; Barling & Van Bart, 1984; Cho & Ciancetta, 2016; MacEwen & Barling, 1991). 이는 전이-교차전이 과정 모델(spillover-crossover process model; Cho & Ciancetta, 2016)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 직장의 특성이 개인의 만족도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개인적 특성이 직접적으로 혹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패턴에서의 변화를 통해 자녀의 발달적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델에 근거하여 취업모의 개인적 특성인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먼저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자녀와의 분리로 인해 걱정, 슬픔, 죄책감 등과 같은 불유쾌한 감정 상태를 경험

하는 것을 의미한다(Hock, McBride, & Gnezda, 1989). 어머니가 경험하는 분리불안은 적절한 어머니 역할을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신민경, 2003), 자녀를 통해 얻는 안정성, 보호, 안락감 등의 정서적 안정을 방해하기 때문에(조복희, 박성옥, 1992), 건강한 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의 발달을 돕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유아의 분리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박해도, 2001; 안지영, 도현심, 1998; 이보리, 2010; Maysless & Scher, 2000; Peleg et al., 2006). 즉,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유아기 및 학령 전기 자녀의 분리불안에 영향을 미치고(안지영, 도현심, 1998; 이보리, 2010; Maysless & Scher, 2000; Peleg et al., 2006), 자녀가 6, 15, 25개월 때 어머니가 경험한 분리불안은 이후 만 6세 시기의 분리불안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Dallaire & Weinraub, 2005).

다음으로 직업만족도는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강란혜, 2010), 취업모의 높은 직업만족도가 자녀의 인지, 사회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장경미, 1995; Barling & Van Bart, 1984; MacEwen & Barling, 1991). 반면 어머니의 근무시간이 길고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자녀는 직업 활동을 하는 어머니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으며(김미경, 이숙현, 1990),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불만족은 영유아의 운동, 사회,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현정, 2009). 또한 취업모의 직업만족도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아기 자녀의 문제행동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조절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최유리, 2017). 이렇듯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지만,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어머니가 높은 직업만족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여아가 불안, 위축, 미성숙 행동 등을 더 보였으며(이선희, 도현심, 2007),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가 자녀가 슬픔,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보였다는 보고(Hart & Kelley, 2006)가 나타나고 있어 어머니의 직장에서의 경험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전이-교차전이 과정 모델에서는 취업모의 개인적 특성이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양육행동의 차원 중 자녀의 불안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으로, 과보호적인 부모는 자녀의 일상생활 및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격려하며, 자녀의 사고와 정서를 통제한다(McLeod, Wood, & Weisz, 2007). 관련하여 Chorpita과 Barlow(1998)는 자녀를 과보호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세상을 위협한 장소로 알리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경험한 유아 및 아동은 전반적인 불안 수준이 높고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보이며(권이중, 2004; Barber, 1996; Bayer, Sanson, & Hemphill, 2006; Edwards, Rapee, & Kennedy, 2010; McShane & Hastings, 2009), 보육기관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일선, 1995; 유우영, 이숙, 1998). 이는 유아의 분리불안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발휘하여, 어머니가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는 분리불안을 더 보였으며(김미경 등,

2008; Mofrad, Abdullah, & Samah, 2009),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의 지나친 개입이 자녀의 분리불안장애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Wood, 2006). 최근에는 분리불안장애가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분리불안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Mayer-Brien, Turgeon, & Lanovaz, 2017)도 나타나고 있다.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또한 어머니가 경험하는 분리불안(김미경 등, 2008; Cooklin, Giallo, D'Esposito, Crawford, & Nicholson, 2013) 및 직업만족도(이유나, 2009; Greenberger & Goldberg, 1989; Lerner & Galambos, 1986)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분리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과보호적·허용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며(김경미, 박범혁, 김영희, 2005; 김명희, 한세영, 2012; 김미경 등, 2008; 신민경, 2003; 유현숙, 고선옥, 2009), 아동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아기취급 행동과 자녀를 지나치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보호적 행동을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소연주, 도현심, 2001). 어머니가 직업에 대해 가지는 만족감 또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박주희, 최예영, 2005), 어머니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수록 온정적·수용적 양육행동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고(김재희, 박경란, 1998; 노진아, 이숙, 2003; 이선희, 도현심, 2007; 최은지, 2011; 한의선, 2014; Crouter & McHale, 1993; Lerner & Galambos, 1986), 자녀에게 덜 권위적이며(Greenberger & Goldberg, 1989), 과호보·허용 양육행동과 거부·방임 양육행동은 낮았다(이유나, 2009). 반면 직업만족도가 낮을 경우 허용·방임적이거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더 보이고(전보운, 1990; 최은지, 2011), 아동을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Greenberger & Goldberg, 1989; Lerner & Galambos, 1986).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 직업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통해 취업모가 경험하는 분리불안 및 직업만족도가 유아기 자녀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매개적 역할을 탐색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어머니의 분리불안, 유아의 분리불안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으며(김미경 등, 2008), 어머니의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걱정 및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과도하게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하여 유아의 걱정 및 불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인 연구(이희선, 강미화, 2010)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매개적 역할에 대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어머니의 초기 분리불안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만 2-3세 시기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Cooklin et al., 2013),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민감성을 저해하여 6세 아동의 분리불안을 높인 것으로 보고되었다(Dallaire & Weinraub, 2005). 또한 어머니의 역할 갈등과 낮은 직업 만족도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높이고, 그 결과 아동이 불안/위축, 품행 장애, 주의집중 문제 등을 더 보였다는 결과(MacEwen & Barling, 1991)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들과 전이-교차전이 과정 모델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취업모의 분리불안 및 직업만족도는 유아의 분리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취업모의 분리불안 및 직업만족도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유아의 분리불안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5세 유아를 둔 취업모 25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만 3-5세 유아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는 발달 과정에서 분리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하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분리불안을 보이는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며 이 경우 이후 분리불안장애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김미경 등, 2008; Kearney et al., 2003; Peleg et al., 2006; Warren et al., 1997).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251)

변인	명 (%)	변인	명 (%)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남아	134(53.4)	만 3세	110(43.8)
여아	117(46.6)	만 4세	77(30.7)
		만 5세	64(25.5)
자녀의 출생순위		출근 시 자녀의 보육 담당	
외동	65(25.9)	어린이집/유치원	199(79.3)
첫째	81(32.3)	친정부모님	15( 6.0)
둘째	85(33.9)	시부모님	3( 1.2)
셋째 이상	19( 7.6)	양가부모님 외 친척	1( 0.4)
무응답	1( 0.4)	가족 및 친척 외 양육자	26(10.4)
		기타	7( 2.8)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25~30세 미만	8( 3.2)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24( 9.6)
30~35세 미만	89(35.5)	전문대졸, 대학교 중퇴	45(17.9)

〈표 1〉 계속

변인	명 (%)	변인	명 (%)
35~40세 미만	120(47.8)	대학교 졸업	147(58.6)
40~45세 미만	29(11.6)	대학원 졸업	29(11.6)
45세 이상	5( 2.0)	무응답	6( 2.4)
어머니의 직업		가정의 월소득	
노동직	1( 0.4)	100~200만원 미만	6( 2.4)
서비스직	16( 6.4)	200~300만원 미만	20( 8.0)
자영업, 일반판매직	14( 5.6)	300~400만원 미만	48(19.1)
일반사무직, 보안업무	42(16.7)	400~500만원 미만	51(20.3)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91(36.3)	500~600만원 미만	58(23.1)
전문직	40(15.9)	600~700만원 미만	37(14.7)
기타	31(12.4)	700만원 이상	31(12.4)
무응답	16( 6.4)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어머니 특성으로 분리불안, 직업만족도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유아 특성으로 분리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어머니 보고로 응답되었다.

### 1) 취업모의 분리불안

취업모의 분리불안은 Hock 등(1989)이 제작한 ‘어머니의 분리불안 척도(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 [MSA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Hock 등(1989)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이후 실시된 국내외 다수의 선행 연구들(김명희, 한세영, 2012; 김미경 등, 2008; Diener & Kim, 2004; Erdwins, Buffardi, Casper, & O’Brien, 2001; Hock & Schirtzinger, 1992; Peleg et al., 2006)은 MSAS가 유아기 및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분리불안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한 바 있다. 원칙도는 어머니의 분리불안, 분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어머니의 인식, 직업과 관련된 분리에 대한 인식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분리불안 자체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Dallaire & Weinraub, 2005; Hock & Schirtzinger, 1992), 어머니가 자녀와 분리 시 경험하는 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어머니의 분리불안’만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돌볼 때 걱정이 된다.’, ‘나는 아이와 떨어져 있을 때 아이가 울면서 나를 찾을 까봐 걱정이 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모의 분리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2) 직업만족도

직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계영(1988)의 직장생활 만족도와 Kalleberg(1977)의 직업만족도 문항을 수정, 보완한 황현주(1994)의 직업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취업모의 직업생활 및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단일요인의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예로는 ‘직장 업무를 통해 나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사용할 수 있다.’, ‘보수가 충분하다.’, ‘직장동료들이 우호적이고 협조적이다.’, ‘나는 나의 직장에 만족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3) 과보호적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원 중 유아의 불안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과 이숙(1990)의 양육행동 척도와 Block(1965)의 CRPR(Child Rearing Practices Report)을 참고하여, 유우영과 이숙(1998)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제작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 중 ‘과보호’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의 예로는, ‘자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내가 가르쳐 준다.’, ‘자녀에게 하라는 일보다 못하게 하는 일이 더 많다.’, ‘다른 아이와 문제가 생기면 일단 내가 끼어든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어머니가 평소 자신의 양육행동이 어떠하였는지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4이었다.

## 4) 유아의 분리불안

유아의 분리불안은 이주혜(1980)가 제작한 ‘유아의 낯가림 및 유기불안 검사 척도’의 두 하위요인인 ‘분리불안’과 ‘낯가림’ 중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분리불안’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분리불안’은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우리 아이는 돌보아 줄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출근을 할 때 운다.’, ‘우리 아이는 나와 함께 놀이터에 갔을 경우에 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행동을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분리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분리불안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 1) 조사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두 곳의 어린이집과 온라인 설문조사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수집되었다. 어린이집을 통한 자료 수집의 경우에는 각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조사

방법 및 응답 시 주의 사항 등을 전달한 후, 각 반의 교사들이 유아를 통해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310부의 질문지가 어린이집에 배부되었으며, 이 중 182부가 회수 되었다(회수율 58.7%).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네 곳의 지역별 인터넷 육아 카페에 공지문을 게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때 중복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한 IP당 한 번만 설문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회수된 설문지는 147부였다. 두 경로를 통하여 총 329부를 회수하였으며, 이들 중 자녀의 연령 등이 연구대상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경우(65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13부)를 제외하고 총 25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예비분석으로 자녀의 성별과 연령 및 출생순위에 따라 각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연령과 출생순위를 통제한 후 편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분리불안, 직업만족도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예비분석

유아의 성별, 연령 및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분리불안, 직업만족도,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분리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의 경우 유아의 분리불안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 = 8.38, p < .001$ ). Scheffé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만 3세와 만 4세 유아 간 분리불안에서 차이가 나타나, 만 3세( $M = 2.68, SD = 0.58$ )가 만 4세( $M = 2.34, SD = 0.61$ )보다 분리불안을 더 높게 경험하였다. 만 3세와 5세, 4세와 5세 간 분리불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2>). 출생순위의 경우 외동을 포함한 첫째와 둘째 이상을 비교한 결과 유아의 분리불안( $t = -2.39, p < .05$ )과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t = -2.22, p < .05$ )에서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외동을 포함한 첫째가 둘째 이상보다 분리불안 수준이 높았으며(첫째:  $M = 2.59, SD = 0.57$ , 둘째 이상:  $M = 2.41, SD = 0.59$ ),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첫째:  $M = 2.82, SD = 0.50$ , 둘째 이상:  $M = 2.69, SD = 0.37$ )도 높았다(<표 3>).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추후 분석에서는 유아의 연령과 출생순위를 통제하였다.



<표 2> 유아의 연령에 따른 분리불안의 차이

연령	<i>n</i>	<i>M</i>	<i>SD</i>	<i>F</i> ( <i>df</i> <sub>1</sub> , <i>df</i> <sub>2</sub> )	Scheffé
3세	110	2.68	0.58		a
4세	77	2.34	0.61	8.38(2,248)***	b
5세	64	2.46	0.50		ab

\*\*\**p* < .001.

주. a, b가 다른 것은 Scheffé test 결과  $\alpha = .05$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함을 나타냄.

<표 3> 출생 순위에 따른 어머니와 유아 특성의 차이

변인	<i>M</i> ( <i>SD</i> )		<i>t</i>
	첫째( <i>n</i> = 146)	둘째 이상( <i>n</i> = 104)	
어머니의 분리불안	2.65(0.40)	2.56(0.39)	-1.76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2.82(0.50)	2.69(0.37)	-2.22*
과보호적 양육행동	3.44(0.59)	3.50(0.56)	.76
유아의 분리불안	2.59(0.57)	2.41(0.59)	-2.39*

\**p* < .05.

## 2. 취업모의 분리불안, 직업만족도,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분리불안 간 관계

취업모의 분리불안, 직업만족도,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분리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의 연령과 출생순위를 통제한 편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4>).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분리불안( $r = .43, p < .001$ )과 직업만족도( $r = -.13, p < .05$ )는 유아의 분리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어머니가 높은 분리불안을 경험할수록, 그리고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유아는 높은 수준의 분리불안을 보였다. 둘째,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r = .31, p < .001$ ),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반면 직업만족도와 과보호적 양육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분리불안 간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하여( $r = .36, p < .001$ ), 어머니가 자녀에게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가 높은 분리불안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r = -.18, p < .01$ ), 취업모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표 4> 변인 간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251)

변인	1	2	3	4
1. 취업모의 분리불안	-	-.17**	.32***	.43***
2. 직업만족도	-.18**	-	-.12	-.12
3. 과보호적 양육행동	.31***	-.12	-	.36***
4. 유아의 분리불안	.43***	-.13*	.36***	-

〈표 4〉 계속

변인	1	2	3	4
<i>M</i>	2.61	2.76	2.54	2.52
<i>SD</i>	0.40	0.46	0.58	0.59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대각선 위는 유아의 연령과 출생순위를 통제하기 전의 상관계수를, 대각선 아래는 연령과 출생순위를 통제한 편상관계수를 제시하였음.

### 3. 취업모의 분리불안, 직업만족도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의 연령과 출생순위를 통제한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35(df = 1, \chi^2/df = .35)$ ,  $NFI = .99$ ,  $CFI = .99$ ,  $RMSEA (90\% CI) = .01(.00, .14)$ 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경로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표 5〉, [그림 1]), 우선 취업모의 분리불안은 유아의 분리불안에 정적인 영향( $\beta = .34, p < .001$ )을 미쳐,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유아의 분리불안도 높았다. 하지만 취업모의 직업만족도는 유아의 분리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취업모의 분리불안만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30, p < .001$ ). 즉,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유아에게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보였다. 마지막으로 취업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분리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eta = .24, p < .001$ ), 어머니가 유아에게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는 분리불안을 더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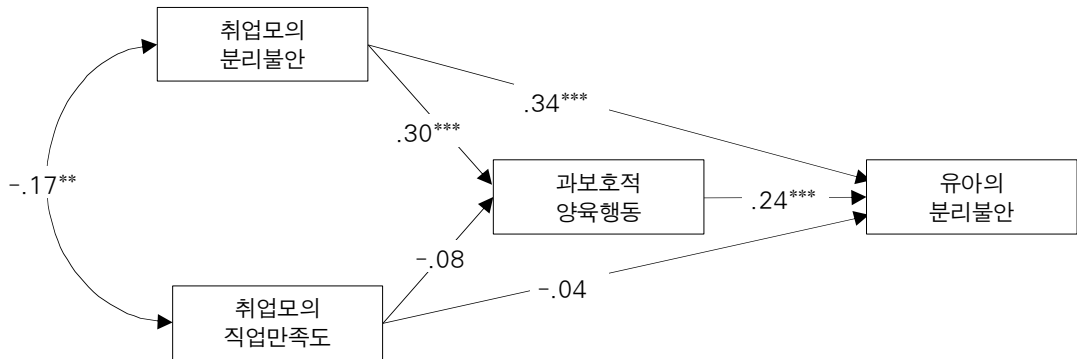
〈표 5〉 경로모형의 모수추정치

( $N = 251$ )

측정변인 간 경로	<i>B</i>	$\beta$	<i>S.E.</i>	<i>C.R.</i>
취업모의 분리불안 → 유아의 분리불안	.50	.34	.09	5.72***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 유아의 분리불안	-.06	-.04	.07	-0.75
취업모의 분리불안 → 과보호적 양육행동	.44	.30	.09	5.01***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 과보호적 양육행동	-.10	-.08	.08	-1.34
과보호적 양육행동 → 유아의 분리불안	.24	.24	.06	4.12***

\*\*\* $p < .001$ .

주. 경로계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 유아의 연령과 출생순위는 통제되었음.



(그림 1)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

\*\* $p < .01$ , \*\*\* $p < .001$ .

주. 통제변인(유아의 연령, 출생순위)과 오차항은 생략하였음.

취업모의 분리불안, 직업만족도,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살펴보았다(<표 6>). 효과성 검증에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취업모의 분리불안은 유아의 분리불안( $\beta = .41, p < .01$ )과 과보호적 양육행동( $\beta = .31, p < .01$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의 분리불안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beta = .07, p < .01$ ). 즉,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더 보이고, 이로 인해 유아의 분리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중상관자승을 확인한 결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선행변인들에 의해 12%, 유아의 분리불안은 25% 설명되었다.

<표 6> 변인 간 직접, 간접 및 총 효과

( $N = 251$ )

	인과적 효과( $\beta$ )			SMC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취업모의 분리불안→유아의 분리불안	.34**	.07**	.41**	.25
직업만족도→유아의 분리불안	-.04	-.02	-.06	
과보호적 양육행동→유아의 분리불안	.24**		.24**	.12
취업모의 분리불안→과보호적 양육행동	.30**		.31**	
직업만족도→과보호적 양육행동	-.08		-.08	

\*\* $p < .01$ .

주. 유의도는 부트스트래핑 방법 시 유의도이며,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는 다중상관자승임.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5세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모의 분리불안 및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관련하여, 취업모의 분리불안의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여 취업모가 분리불안을 더 보일수록 유아도 높은 분리불안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유아기 및 학령 전기 아동의 분리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박해도, 2001; 안지영, 도현심, 1998; 이보리, 2010; Maysless & Scher, 2000; Peleg et al., 2006)의 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와 유아가 보이는 분리불안 간 관련성은 쌍생아 연구들(Cronk et al., 2004; Feigon, Waldman, Levy, & Hay, 2001)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유전과 환경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즉, 높은 불안 수준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가 유전적으로 불안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경험에 노출될 기회가 제한되어 분리 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해되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지만, 부모 자녀관계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적인 관계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김주원, 2009), 유아의 불안 수준이 높을 경우 어머니가 자녀와의 분리 상황에 대해 더 염려하고 불안해 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설계를 통해 어머니와 유아의 불안 간 상호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리불안과는 달리, 취업모의 직업만족도는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유아의 분리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경로모형에서는 유아의 분리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취업모의 직업만족도와 유아의 분리불안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관분석에 기초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머니가 높은 직업만족도를 보일 경우 초등학교 5-6학년 여아가 불안 및 위축행동을 덜 보이며(이선희, 도현심, 2007), 어머니가 일-가정 양립으로 인한 갈등을 더 느낄 경우 영유아기 자녀가 슬픔이나 불안을 더 보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Hart & Kelly, 2006),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관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동기나 직업으로 인한 역할갈등은 만 3세 유아의 자율성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지각과 관련이 있지만, 직업만족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Alvarez, 1985)도 보고되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다양한 직업관련 특성과 이로 인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서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경우 취업모의 분리불안의 영향만 유의하였는데, 이는 취업모의 분리불안이 직업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두 변인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업만족도뿐 아니라 다양한 취업관련 변인과 이로 인한 취업모의 주관적 경험을 함께 포함한 모형을 설정하여,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관련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취업모의 분리불안 및 직업만족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취업모의 분리불안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분리불안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을수록 과보호·허용적 양육행동은 높아지고 그 결과 유아의 긍정적 정서 및 어린이집 적응 수준은 낮아지며(유현숙, 고선옥, 2009), 어머니의 초기 분리불안이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민감성을 저해하여 아동의 분리불안으로 이어진다는(Dallaire & Weinraub, 2005)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김명희, 한세영, 2012; 김미경 등, 2008; 소언주, 도현심, 2001; 유현숙, 고선옥, 2009; Benedek, 1970; Levy, 197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분리불안(김미경 등, 2008) 및 정서적 불안(권이종, 2004; Barber, 1996; Bayer et al., 2006; Edwards, Rapee, Kennedy, & Spencer, 2010; McShane & Hastings, 2009)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자녀와의 분리로 인해 느끼는 불안은 자녀와 재결합하였을 때 과보호와 같은 보상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결과 유아의 분리불안이 가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가 자녀와의 분리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걱정하기 보다는,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적절한 양육방식을 취하고 질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유아의 분리불안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걱정 및 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수용적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이희선, 강미화, 2010)나 어머니의 낮은 직업만족도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불안/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MacEwen & Barling, 1991)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데, 관련 선행연구들(이유나, 2009; Greenberger & Goldberg, 1989; Lerner & Galambos, 1986)에서는 두 변인 간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취업모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직업만족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유신희, 1986; 이선희, 도현심, 2007; 장경미, 1995; Barling & Van Bart, 1984)의 결과와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다양한 양육행동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분리불안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어 온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는 각각 다른 차원의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유아의 분리불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양육행동의 차원을 포함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종합하면, 취업모의 분리불안은 유아의 분리불안에 직접적 영향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적 영향을 모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만족도가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 영향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취업모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이 직업만족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비해(유신희,

1986; 이선희, 도현심, 2007; 장경미, 1995; Barling & Van Bart, 1984; Hoffman, 1974), 본 연구에서는 직업만족도가 양육행동 및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분리불안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분리불안 및 다양한 차원의 양육행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취업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모두 어머니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관적 관점 및 기대에 따라 본인과 자녀의 행동을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어린이집 교사, 조부모 등 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응답자가 함께 보고하는 방식이나, 분리 및 재결합 시 어머니와 유아가 보이는 행동을 관찰하는 등 보다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 및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며 여러 차원의 양육행동이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작용하여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양육행동을 포함하여 취업모의 개인적 특성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행동이 매개하는 지 여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데 있어 기존에 개발된 척도 중 일부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각 개념에 초점을 둔 척도가 개발, 타당화되어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지금까지 취업모를 대상으로 유아기 자녀의 분리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를 함께 고려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분리불안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는 직업만족도의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직업만족도가 취업모와 유아의 분리불안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취업모가 직업으로 인해 자녀와 분리하여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불안해하기 보다는,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초점을 두어 긍정적인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분리불안과 직업만족도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분리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비취업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감안한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분리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보호적인 태도를 의식적으로 경계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아기 자녀가 겪는 분리불안의 감소를 위해서는 취업모의 분리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취업모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란해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가족 및 사회지원체제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2), 155-173.
- 권일선 (1995).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이중 (2004). **생활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생활교육·성교육**. 파주: 한국학술정보.
- 김경미, 박범혁, 김영희 (2005).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관련된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 **놀이치료연구**, **9**(1), 23-37.
- 김명희, 한세영 (2012).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4), 99-115.
- 김미경, 김연화, 한세영 (2008).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7), 71-84.
- 김미경, 이숙현 (1990).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동의 태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1**(2), 98-113.
- 김주원 (200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완벽주의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희, 박경란 (1998).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5**, 295-319.
- 김지선 (2009). 가족 특성, 영아의 기질, 보육 경험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이소은 (2013).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소진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7**(3), 369-391.
- 노진아, 이숙 (2003).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직업특성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행동. **한국가정과학회지**, **6**(1), 81-93.
- 박성연, 이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주희, 최예영 (2005). 아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맥락으로써의 어머니 취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13**, 37-53.
- 박해도 (2001). 어머니와 영유아의 분리불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연주, 도현심 (2001).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특성, 아동의 초기 기질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11), 209-222.
- 신민경 (2003).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 도현심 (1998). 자녀 양육행동, 아동의 낮가림 경험 및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분리불안. **대한가정학회지**, **36**(8), 13-20.

- 유신희 (1986). 어머니의 직업과 유아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우영, 이숙 (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양육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 유현숙, 고선옥 (2009).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연구**, **7**(2), 17-34.
- 이기숙, 김영옥, 박경자 (2005). 보육 경험과 유아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 **유아교육연구**, **25**(6), 255-276.
- 이보리 (2010). 어머니 분리불안과 아버지 양육참여도, 부부 애착안정성이 유아 분리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 도현심 (2007).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5), 269-284.
- 이유나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 직업 만족도, 역할 갈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혜 (1980). 아동의 낮가림 및 격리불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제영 (1988).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갈등, 만족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 (2009). 취업모의 직업 특성이 양육행동과 영유아의 운동, 사회,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3), 1-21.
- 이희선, 강미화 (2010). 어머니의 직업만족도 및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0**(4), 73-86.
- 장경미 (1995). 취업모의 취업경험과 자녀의 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보운 (1990).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만족도가 아동양육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박성옥 (1992).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13**(1), 16-37.
- 최유리 (2017). 취업모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취업모의 직업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지 (2011).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사회적지지,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6. 12). **2016 일·가정양립 지표**.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58035](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58035)에서 2016년 12월 14일 인출.
- 한국심리학회 연수회 (1985). **발달심리학 연구의 최근동향**. 서울: 한국심리학회.
- 한의선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및 촉진과 직업만족도가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현주 (1994). 맞벌이 부부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간의 역할전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varez, W. F. (1985). The meaning of maternal employment for mothers and their perceptions of their three-year-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2), 350-360. doi:10.2307/1129725
- Ambrose, J. A. (1961). The development of the smiling response in early infancy. In B. M. Foss (Ed.),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ur* (pp. 179-196). Oxford, UK: Wiley.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doi:10.1111/j.1467-8624.1996.tb01915.x
- Barling, J., & Van Bart, D. (1984). Mothers' subjective employment experiences and the behaviour of their nurse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7*(1), 49-56. doi:10.1111/j.2044-8325.1984.tb00147.x
- Bayer, J. K., Sanson, A. V., & Hemphill, S. A. (2006). Parent influences on early childhood internalizing difficultie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6), 542-559. doi:10.1016/j.appdev.2006.08.002
- Benedek, T. (1970). Motherhood and nurturing. In E. J. Anthony & T. Benedek (Eds.), *Parenthood: Its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 (pp. 153-166). Boston, MA: Little, Brown.
- Block, J. H. (1965). *The Child-Rearing Practices Report (CRPR): A set of Q items for the description of parental socialization attitude and valu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 Cho, E., & Ciancetta, L. (2016). Child outcomes associated with parent work-family experiences. In T. D. Allen & L. T. Eby (Eds.), *The Oxford handbook of work and family* (pp. 151-164).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horpita, B. F., & Barlow, D. H. (1998). The development of anxiety: The role of control in the early environ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4*(1), 3-21. doi:10.1037/0033-2909.124.1.3
- Cooklin, A. R., Giallo, R., D'Esposito, F., Crawford, S., & Nicholson, J. M. (2013). Postpartum maternal separation anxiety, overprot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social-emotional well-being: Longitudinal evidence from an Australian cohor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4), 618-628. doi:10.1037/a0033332
- Côté, S. M., Mongeau, C., Japel, C., Xu, Q., Séguin, J. R., & Tremblay, R. E. (2013). Child care quality and cognitive development: Trajectories leading to better preacademic skills. *Child Development, 84*(2), 752-766. doi:10.1111/cdev.12007
- Cronk, N. J., Slutske, W. S., Madden, P. A., Bucholz, K. K., & Heath, A. C. (2004). Risk for separation anxiety disorder among girls: Paternal absence,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genetic vulnerabi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2), 237-247. doi:10.1037/0021-843X.113.2.237
- Crouter, A. C., & McHale, S. M. (1993). The long arm of the job: Influences of parental work on childrearing.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179-20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Dallaire, D. H., & Weinraub, M. (2005). Predicting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at age 6: The contributio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maternal sensitivity, and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7*(4), 393-408. doi:10.1080/14616730500365894
- Diener, M. L., & Kim, D. Y. (2004). Maternal and child predictors of preschoo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1), 3-24. doi:10.1016/j.appdev.2003.11.006
- Edwards, S. L., Rapee, R. M., & Kennedy, S. (2010). Prediction of anxiety symptoms in preschool-aged children: Examination of maternal and paternal perspectiv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3), 313-321. doi:10.1111/j.1469-7610.2009.02160.x
- Edwards, S. L., Rapee, R. M., Kennedy, S. J., & Spence, S. H. (2010). The assessment of anxiety symptoms in preschool-aged children: The revised Preschool Anxiety Scale.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9*(3), 400-409. doi:10.1080/15374411003691701
- Erdwins, C. J., Buffardi, L. C., Casper, W. J., & O'Brien A. S. (2001). The relationship of women's role strain to social support, rol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Family Relations, 50*(3), 230-238. doi:10.1111/j.1741-3729.2001.00230.x
- Feigon, S. A., Waldman, I. D., Levy, F., & Hay, D. A. (2001).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separation anxiety disorder symptoms and their moderation by age and sex. *Behavior Genetics, 31*(5), 403-411. doi:10.1023/A:1012738304233
- Greenberger, E., & Goldberg, W. A. (1989). Work, parenting and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5*(1), 22-35. doi:10.1037/0012-1649.25.1.22
- Hart, M. S., & Kelley, M. L. (2006). Fathers' and mothers' work and family issues as related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of children attending day care. *Journal of Family Issues, 27*(2), 252-270. doi:10.1177/0192513X05280992
- Hock, E., McBride, S., & Gnezda, M. T. (1989). Maternal separation anxiety: Mother-infant separation from the mater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0*(4), 793-802. doi:10.2307/1131019
- Hock, E., & Schirtzinger, M. B. (1992). Maternal separation anxiety: Its developmental course and relation to maternal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63*(1), 93-102. doi:10.1111/j.1467-8624.1992.tb03598.x
- Hoffman, L. W. (1974).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 A review of the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0*(2), 204-228. doi:10.1037/h0035981
- Howes, C. (2000). Social-emotional classroom climate in child care, child-teach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cond grade peer relations. *Social Development, 9*(2), 191-204. doi:10.1111/1467-9507.00119
- Kagan, J., Kearsley, R. B., & Zelazo, P. R. (1980). *Infancy: Its place in human development*. NY: Harvard University Press.
- Kalleberg, A. L. (1977). Work values and job rewards: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 Sociological Review*, 42(1), 124-143. doi:10.2307/2117735
- Kearney, C. A., Sims, K. E., Pursell, C. R., & Tillotson, C. A. (2003). Separation anxiety disorder in young children: A longitudinal and family analysi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4), 593-598. doi:10.1207/S15374424JCCP3204\_12
- Lerner, J. V., & Galambos, N. L. (1986).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change: The infl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on infants and toddlers. *Advances in Infancy Research*, 4, 39-86.
- Levy, D. M. (1970). The concept of maternal overprotection. In E. J. Anthony & T. Benedek (Eds.), *Parenthood: Its psychology & psychopathology* (pp. 387-409). Boston, MA: Little, Brown.
- MacEwen, K. E., & Barling, J. (1991).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experiences on children's behavior via mood, cognitive difficulties, and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635-644. doi:10.2307/352739
- Marks, I. M. (1987). *Fears, phobias and rituals: Panic, anxiety and their disorders*.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ayer-Brien, S., Turgeon, L., & Lanovaz, M. J. (2017). Effects of a parent training programme for the treatment of young children with separation anxiety disorder. *The Cognitive Behaviour Therapist*, 10. doi:10.1017/S1754470X17000198
- Mayseless, O., & Scher, A. (2000). Mother's attachment concerns regarding spouse and infant's temperament as modulator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1(7), 917-925. doi:10.1111/1469-7610.00679
- McLeod, B. D., Wood, J. J., & Weisz, J. R. (2007).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hood anxiety: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2), 155-172. doi:10.1016/j.cpr.2006.09.002
- McShane, K. E., & Hastings, P. D. (2009). The new friends vignettes: Measuring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hat confers risk for anxious adjustment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6), 481-495. doi:10.1177/0165025409103874
- Mofrad, S., Abdullah, R., & Samah, B. A. (2009).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and separation anxiety: Does specific parental rearing serve as specific risk factor. *Asian Social Science*, 5(11), 109-116. doi:10.5539/ass.v5n11p109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3). Does amount of time spent in child care predict socioemotiona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74(4), 976-1005. doi:10.1111/1467-8624.00582
- Peisner-Feinberg, E. S., Burchinal, M. R., Clifford, R. M., Culkin, M. L., Howes, C., et al. (2001). The relation of preschool child-care quality to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al trajectories through second grade. *Child Development*, 72(5), 1534-1553. doi:10.1111/1467-8624.00364

- Peleg, O., Halaby, E., & Whaby, E. N. (2006).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nd differentiation of self to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and adjustment to kindergarten: A study in Druze famili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8), 973-995. doi:10.1016/j.janxdis.2006.01.008
- Shaffer, D. R., & Kipp, K. (2013).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9th ed). Belmont, CA: Wadsworth.
- Spence, S. H., Rapee, R., McDonald, C., & Ingram, M. (2001). The structure of anxiety symptoms among preschool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11), 1293-1316. doi:10.1016/S0005-7967(00)00098-X
- Warren, S. L., Huston, L., Egeland, B., & Sroufe, L. A. (1997). Child and adolescent anxiety disorders and early attach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5), 637-644. doi:10.1097/00004583-199705000-00014
- Wood, J. J., (2006). Parental intrusiveness and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in a clinical sample.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37(1), 73-87. doi:10.1007/s10578-006-0021-x

논문투고: 17.08.15  
수정원고접수: 18.01.15  
최종게재결정: 18.01.25